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54호]

2023년 12월 20일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일 자 : 2023.12. 4.
- 나. 발 의 자 : 이상우 의원
- 다. 위원회 회부 : 2023.12. 5.
- 라. 위원회 심사 : 2023.12.14.

2. 제안설명 요지(설명자 : 노미경의원)

가. 재정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제1조~제3조)
-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제4조)
- 구매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제5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제7조,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옥)

- 본 조례안은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음.
- 2022. 3. 2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 파리협정, 2018년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발간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 중에도 산림은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인정한 기후변화대응의 자연친화적 해결책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산림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산림과 목재산업은 오히려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역시,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이 주목받고 있고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확한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 목재문화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제정 유로 밝히고 있음.
-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도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5.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6. 첨부 자료 : 해당없음